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 로동신문

위대한 김정은 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 287호 [루게 제 24700호] 주제 103 (2014)년 10월 14일 (화요일)

##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새로 일떠선 위성과학자주택지구를 현지도하시였다

과학기술을 국가발전의 중대사로 내세우고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우리 조국을 하루 빨리 온 세계가 우러러보는 천하제일강국으로 일떠세우시려는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드림없는 결심과 의지에 떠받들려 위성과학자주택지구가 웅장화려하게 건설되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새로 일떠선 위성과학자주택지구를 현지도하시였다.

황명서 동지, 최태복 동지, 최봉해 동지, 한광상 동지, 김정관 동지가 동행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국가과학원 원장 장철동지, 국가과학원 당위원회 책임비서 김운기 동지를 비롯한 해당 부문의 일군들과 건설에 참가한 군부대지휘관들이 맞이하였다.

우리 당의 과학중시, 인재중시정책의 빛나는 결실인 위성과학자주택지구는 사회주의문명국의 체모에 맞는 선군시대의 또 하나의 선경이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위성과학자주택지구건설을 직접 발기하시였으며 당창건 69돐까지 완공하여 과학자들에게 선물로 안겨줄수 있도록 건설의 전



내놓아도 손색이 없게, 새 세기 교육기지의 본보기답게 훌륭히 시공하였으며 종합진료소와 약국 등 보건 시설들은 물론 위성원을 비롯한 편의봉사시설들도 성의껏 잘 지었다고 평가하시였다.

과학자들이 문화정서생활과 휴식을 마음껏 할수 있게 공원들도 멋있게 꾸려놓았다고 하시면서 특히 체육공원은 전문체육시설 못지 않다고 말씀하시였다.

주택지구에 과학자들을 위한 터밭도 조성해놓고 배추, 무우를 비롯한 남새들을 재배하고있으며 고리형순환생산체계를 도입한 태양열은실까지 멋들어지게 건설해놓았다고 기뻐하시였다.

경애하는

과정을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심장마다에 새겨안고 산악같이 떨쳐나선 인민군인들과 건설자들은 지난 3월 착공의 첫삽을 박은 때로부터 낮과 밤을 이어가며 결사전을 벌임으로써 불과 7개월동안에 방대한 규모의 주택지구를 보란듯이 일떠세우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와 보살피심속에 솟아오른 위성과학자주택지구는 24개 호동의 다층살림집들과 학교, 병원, 락아소, 유치원, 각종 편의봉사시설들을 비롯한 공공

건물들, 공원들로 이루어져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위성과학자주택지구조감도앞에서 해설을 들으신 다음 주택지구를 부감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여러가지 색라일로 보기 좋게 장식된 살림집들과 공공건물들의 외부를 바라보시면서 정말 멋있다고, 희한한 풍경이라고 대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성과학자주택지구의 모든 살림집들과 공공건물들이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건축미학적으로, 조형예술적으로 잘 건설되였다, 이 지구가 몇개월사이에 천지개벽

되였다고 거듭 만족해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살림집, 소학교, 초급중학교, 약국, 종합진료소, 위성원, 태양열은실 등 위성과학자주택지구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건설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살림집들이 아담하고 생활에 편리하게 꾸려졌을뿐 아니라 질 좋은 가구비품들도 일식으로 갖추어졌다고 하시면서 모든 집들에 당에서 마련한 천연색TV와 이불, 집기류들까지 놓아주면 과학자들이 맨몸으로 들어와 살수 있을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락아소와 유치원, 학교들을 그 어디에

김정은 동지께서는 이날 위성과학자주택지구와 함께 새로 건설한 국가과학원 자연에너르기연구소도 돌아보시였다.

지난 1월 국가과학원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국가과학원에 환경오염이 없고 생태환경을 파괴시키지 않는 에너르기자원을 적극 개발리용하기 위한 연구소를 내와야 한다고 하시면서 현대적인 자연에너르기연구소를 일떠세울것을 몸소 발기하시고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일일이 풀어주시였다.

2 면 으 로 계 속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새로 일떠선 위성과학자주택지구를 현지도하시였다



### 1 변 에 서 계 속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자연에너지 연구소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당의 의도에 맞게 건설을 질적으로 했다고 치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위성과학자주택지구는 건설에서 선 편리성, 선 미학성의 원칙을 지킬데 대한 당의 요구를 철저히 구현한 또 하나의 이상적인 주택지구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당의 명령을 높이 받들고 힘찬 투쟁을 벌려 당에서 과학자들과 약속한 기간에 위성과학자주택지구를 최상의 수준에서 훌륭히 완공한 인민군군인들과 건설자들에게 당중앙의 이름으로 감사를 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위성과학자주택지구를 일떠세운것은 우리의 건축술을 과시하자는데 있는것이 아니라 과학자들이 아무런 불편도 없이 과학연구

사업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시였다.

우리의 과학자들은 과학에는 국경이 없지만 자기들에게는 영원히 안겨살 사회주의조국과 어머니당의 품이 있다는 신념을 안고 부강조국건설에 한생을 바쳐가는 애국자들이라고, 그들을 위해서는 아까울것이 없다고, 과학자들을 내세워주고 우대해주며 그들을 위해 항상 마음을 써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은정과학지구에 위성과학

자주택지구와 같은 살림집들과 공공건물들을 더 건설하여 이곳을 세계적인 과학도시로 전변시키자고 하시면서 그를 위한 은정길은 조치들을 취해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국가과학원의 모든 과학자들과 일군들이 높은 이상과 꿈을 안고 눈부신 과학기술성가로 부강조국건설위업에 적극 기여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면서 새로 건설된 살림집들에

임사하게 될 과학자들과 함께 국가과학원에 높이 모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동상앞에서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우리 당의 과학중시, 인재중시사상이 그대로 터전이 되고 과학자들에 대한 어머니당의 한없는 사랑과 믿음이 주춧돌이 되어 솟아오른 위성과학자주택지구는 영광스러운 김정은시대의 자랑찬 창조물로 길이 빛날것이다.

본사정치보도반



#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새로 일떠선 위성과학자주택지구를 현지지도하시였다



##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에쥘트 오라스콤전기통신수단 및 기술 주식회사 리사장이 선물을 드리였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있는 에쥘트 오라스콤전기통신수단 및 기술주식회사 리사장이 선물을 드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드리는 선물을 나기브 싸워 리스 리사장이 13일 내각총리 박봉주동지에게 전달하시였다.

본사기자

## 김정일 동지 회고 위원회 까히라에서 결성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서거 3돐에 즈음하여 에쥘트전기회고위원회가 2일 까히라에서 결성되였다. 회고위원회 위원장으로 에쥘트 조선친선협회 위원장인 에쥘트 자회사인 자카리아 부위원장 야호야 자카리아 헤이롤라가 선출되였다. 회고위원회는 10월 2일부터 12월 17일까지의 기간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후의 고전적 저작들을 출판하고 출판보도물에 특집하며 업적토론회, 사진전시회, 영화상회 등 정치문화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하였다.

【조선중앙통신】

## 조선인민의 투쟁을 승리로 이끄는 위대한 당 여러 나라 인사들 강조

조선로동당창건 69돐을 맞으며 세계 진보적인사람들은 축전들을 통하여 조선로동당의 창건자, 건설자이신 위대한 김정일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높이 칭송하고있다. 영국선군정치연구학회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정일동지께서 창건하신 조선로동당은 조선인민을 최후승리에로 령도하는 조직자이며 항도자이다. 조선로동당이 혁명과 건설을 승리로 이끄는 령도력은 령도하는 세계 모든 혁명적당들의 모범으로 되고있다. 김정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로동당은 강성국가건설과 나라의 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을 이끌어 인민대중을 새로운 조선속도창조로 고무하고있다. 주제사상, 선군사상에 기초하여 공고한 단결을 이룩한 조선로동당은 오늘도 래일도 위대한 김정일동지와 불멸의 업적을 높이 칭송하고있다. 베니스사회주의당 위원장은 위대한 김정일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로동당이 창건후 70년간 온갖 풍파와 시련을 헤치며 조선인민을 언제나 승리로 이끌어온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그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정치사상장군, 군사장군의 지위에 올려세운 조선로동당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밑에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 사회주의문명국건설에 박차를 가하고있다고 강조하였다. 핀란드공산주의자동맹 위원장은

당은 장구한 기간 승리와 영광의 령도를 이룩한 모든 성과에 대해 커다란 긍지를 가지고 지켜보고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계속하였다. 김정일동지께서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을 혁명적당으로 건설하시였다. 그분들이 이룩하신 업적으로 하여 오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들이 행복한 생활을 누리는 사회주의강국으로 전변될수 있었다. 조선로동당은 김정일-김정일주의를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인민들의 생활을 보살펴주는 진정한 어머니당이다. 칠레공산당(프로레타리아행동) 중앙위원회 제1비서는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김정일동지께서 창건하시고 강화발전시키신 조선로

【조선중앙통신】

## 래양칭송의 환호성 오늘도 조국강산에 메아리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국개선연설을 하신 뜻깊은 날을 맞으며

지금으로부터 69년전, 삼천리강산을 진동시켰던 격정과 환희의 열풍은 오늘날도 인민의 마음속에서 찾을수 있다. 주제 34(1945)년 10월 14일은 온 나라, 온 겨레가 그처럼 목마르게 고대하던 령도의 시작이었다. (아, 그 이튿날도 빛나는 김정일동지! 당국의 비운이 무겁게 드리워 하늘 땅이 캄캄하던 그때에 총지령을 쓰시며 일제침략군을 때려부신 우리의 장군님은 저리도 젊으시고 저리도 젊으셨는지 모르시나!) 위대한 수령님의 젊음과 열정에 넘치는 몸품하고 활달하신 모습, 예지로 빛나는 안광속에 조국의 창창한 미래가 비껴있고 만면에 담으신 인자하신 미소속에 인민의 끝없는 행복과 조국의 무궁한 번영이 기약되어있음을 환영증은 온몸으로 느끼었다. 그날의 광경을 당시의 한 신문은 《금수강산을 진동시키는 40만의 환호성》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전하였다. 《평양의 령사가 깊어 4천년, 인구 가 적지 않아 40만이라 하나니 일

아니라 온 세계가 공인하는 인류의 래양이십이다.》 우리 수령님의 혁명력사는 민족대 단결사상의 승리의 령사로 찬란히 아로새겨져있다. 어떤 민족이든지 하나로 굳게 단결하면 강한 민족이 되고 갈라지면 약한 민족이 된다는 진리를 깨닫고 단결하는 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현명하신것으로 간주해오신것이였다. 민족자주의 건국리념을 실현하기 위해서도 온 민족이 단결하고 다시금 외세의 통략물이 되지 않기 위해서도 단결하고 또 단결하여야 한다. 이것이 수령님의 신념이였다. 하기에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전제 조선인민과 단결을 새 조국건설의 가장 힘있는 방도로 제시하시고 건국의 첫걸음을 힘있게 떼신것을 아니한다. 해방전 조국에서의 당, 국가 및 무력건설의 3대과업을 제시하시고 순조롭게 완수하시여 어머니수령님께서는 어떻게 개선연설을 하시였다. 조국당에서 우리 인민, 우리 민족에게 하신 말씀이 너무도 많으신것을 우리는 잊지못하고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무도 많으신것을 우리는 잊지못하고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무도 많으신것을 우리는 잊지못하고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무도 많으신것을 우리는 잊지못하고 있다.

찬 마치고 소리와 민족부흥의 벽찬 음향이 차남했다. 돌이켜보면 우리 당의 혁명력사에 일관하게 구현되어온 민족대단결사상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헌성의 지론이 깰수 없게 되였다. 그것이 우리 민족의 앞을 열어주는 길은 힘있게 열어나갈수 있다는 열화와 같은 조국의 조해방에 리해관계를 가지는 모든 사랑하는 전민족이 굳게 단결하여 민주주의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해나가기 위해서였다.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가 로동자이건, 지식인이건, 자산가이건 모두가 나라와 민족의 부흥발전을 위한 새 조국건설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설때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열렬한 애국의 호소는 환영증의 심장을 완전히 틀어잡았다. 위대한 수령님의 그날의 령사적인 개선연설이 바로 오늘도 우리 민족사에 뜻깊은 한페이지로 아로새겨져있는 불멸의 호소 《모든 힘을 새 민주조선건설을 위하여》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이 절절한 호소는 그대로 단결의 기치밑에 진정한 단결을 이룩하는것이아말로 우리 나라를 부강번영하고 문명한 나라로 만드는 길이라는 것을 밝혀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새 민주조선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전민족이 굳게 단결하여야 하며 전제 인민이 힘을 합쳐

본사기자 리금분

# 열렬한 조국애, 향토애를 지니고 가을철국토관리총동원사업에서 혁신을

## 중심고리를 바로 정하고 역량을 집중해야 할 사업

### 국토환경보호성 일군들과 나눈 이야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국토관리사업에서 전환을 가져오려면 모든 기관, 기업소, 협동농장과 모든 일군들과 인민들이 이 사업에 총동원되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조선속도창조의 불길드높이 가을철국토관리총동원사업에서도 새로운 혁신을 일으키기 위한 투쟁으로 들끓고있다.

얼마전 우리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원대한 구상을 받들고 이번 국토관리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는데서 나서는 문제를 놓고 국토환경보호성 일군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기자: 모든 사업이 그러한 것처럼 가을철국토관리총동원사업에서도 중심고리를 바로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부상 박호영: 옳은 말이다. 국토관리는 나라의 전병을 포괄하는 대단히 폭넓고 거창하며 장기성을 띠는 전방적인 사업이다. 나무모생산과 심기, 도로건설과 기술개진, 강화천정리, 연안, 항해관리, 거리와 마을관리, 환경보호, 자연보호 등 국토관리사업에서는 그 어느 한가지도 소홀히 할수 없다. 그러므로 국토

관리사업에서 중심고리를 바로 정하고 로력과 자재, 설비를 집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국토관리총동원기간에는 여러가지 복잡한 사업이 진행된다. 가을철국토관리총동원기간만 보더라도 가을걷이와 낱알떨기, 수매, 건설, 겨울나이준비 등 날씨가 추워지기 전에 해야 할 일감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올해 가을철국토관리총동원기간에 수백km의 도로기술개진과 1400여km의 강화천정리, 백수십만구의 나무심기, 100여개소의 다리보수 등을 겨울철이 오기 전에 해야 하므로 풀이 많이 드는 대상을 바로 정하고 날 자별계획을 면밀하게 세우는데 기초하여 역량을 집중하여야 한다.

기자: 가을철국토관리총동원사업의 중심을 어디에 두고 역량을 집중하는가.

국장 홍정범: 지금 전국의 모든 도, 시, 군에서 도로기술개진공사를 가을철국토관리총동원사업의 중요항목으로 제기하고 역량을 집중하고있다.

가을철에 진행되는 도로기술개진공사는 겨울을 앞두고 하는 사업이다. 그러므로 하여 겨울철에 물론 기계들의 안전한 운행과

여 높아진 강화천바닥을 파올려 제방을 쌓고 장성을 입히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있다. 나무종자를 넉넉히 마련하기 위한 사업에 힘을 기울이고있다. 올해에도 눈이 내리기 전에 수백의 나무종자를 채취해야 한다. 때문에 각 시 산림경영소들에서 많은 역량을 나무종자채취에 돌리고있다.

기자: 현재 전국각지에서 가을철국토관리총동원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있는지 알고싶다.

처장 안동철: 도로건설과 기술개진, 강화천정리사업이 힘있게 진행되고있다. 청천강계단식발전소가 건설되는 지구를 비롯하여 여러 지역에서 도로건설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도로기술개진공사도 추진되고 있다. 평양시, 회창군, 금강군, 허천군, 탁원군, 대흥단군, 은불군, 재령군, 자성군을 비롯한 모든 시, 군들에서 도로기술개진공사에 역량을 집중하여 성과를 확대해나가고있다.

강화천정리공사에서도 새로운 혁신이 창조되고있다. 안주시, 신대군, 정동군, 경원군, 무산군, 온성군, 영광군, 백암군, 삼천군 등에서 강화천정리공사에

평안남도 일군들과 근로자들과 기공을 따라배우며 때 못해 일이 없었던 배침을 가지고 처음부터 드세한 공격진을 들이대었다.

공사지휘부의 일군들은 공사단계와 단계별목표를 바로 정하고 시공지도를 짜고면서 지휘를 패기있게 하였다.

도안의 기관, 공장, 기업소일군들과 근로자들이 공사에 힘치게 펼쳐나갔다.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공사시작부터 애국의 수레를 아낌없이 바치였다. 이들은 도로라는 심정의 대로를 열어가는 심정의 열풍이며 평명수준을 보여주는 중요한 척도의 하나라고 단호한 뜻으로 심장깊이 새겨안고 맡겨진 과제를 불이 꺼지지 않게 해였다.

도로급수와 기술개진공사의 요구에 맞게 도로를 넓히고 로반을 조성하며 구조물을 건설하기 위해 창조적재해와 열정을 높여 발휘하였다. 확정된 도면에 손색을 퍼는 작업과정에 혼신투쟁으로부터의 거리가 멀어지면서 여러가지 애로와 난관이 제기되었다.

하지만 이들은 무엇이 불가능하다면 그것은 조선전선이다. 라고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명언을 되새기며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고 합리적인 방법을 적극 받아들여 수천㎡의 혼석운반을 성과적으로 해나갔다. 밤낮이 바뀌어 작업장에서 더욱 불꽃튀는 전투가 벌어졌다. 공사지휘부에서는 제일 어렵고 풀이 많이 드는 이 작업에 전투력이 강한 단위들을 동원시켰다.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인민군단들의 백색불꽃의 투쟁정신

판교군에서 립진강제방공사를 성과적으로 해내어 큰물로부터 군소재지를 안전하게 보호할수 있는 담보를 마련하였다. 하기에 최근 이곳을 찾는 사람들은 새물변모된 립진강의 오늘날 모습에서 보다 아름답다. 전번될 군소재지의 폐일을 본다고 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강화천에 흙과 모래가 흘러들고 사재가 나는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철저히 세워야 합니다.》

립진강은 길이 수백km인 데 범동군에서 시작하여 판교군, 이천군, 철원군을 지나 한강과 합쳐진다.

장마철에 무더기비가 내릴 때에는 리상천을 비롯한 크고 작은 하천들의 많은 물이 이강으로 흘러들면서 그 양이 수천㎡로 급격히 늘어났고 있다.

특정적인것은 군소재지일대의 강폭이 백수십m이지만 물매가 급하여 흐르는 속도가 빠른것이다. 그러므로 하여 장마철에 오랜 시간 무더기비가 내릴 때에는 군소재지의 일부지역이 피해를 입곤 하였다.

이로부터 군일군들은 립진강제방공사를 당의 국토관리구상을 빛나게 실현하기 위한 중요항목의 하나로 정하고 설계를 앞세웠다. 그리고 로동자, 사무원들속에 들어가 이 공사의 중요성을 깊이 해설해주면서 그들을 힘있게 조직동원하였다.

림진강제방공사를 오늘 뿐 아니라 내 후날에도 손색없이 견고하면서도 문화적으로 하. 이 립진강은 영의리 가슴을 꿰뚫어 분발해나선 일군들과 로동자, 사무원들은 강바닥의 골짜기같은 돌을 담은 목도를 메고 달려도 달리지 않았다.

제방장성공사를 맡은 일군들과 로동자, 사무원들은 한㎡의 장성공사를 해도 서로의 창조적재해와 힘을 합쳐가면서 기술요구를 철저히 지켜 견고성과 문화성을 보장하였다.

그 나날에 이들은 7000여㎡의 강바닥돌을 운반하여 천수백m구간의 립진강제방에 400여㎡의 장성공사를 하였다. 그리고 제방우에 흙다짐을 하고 잔디를 심었다.

물을 들인 보람으로 이 일대가 천지개벽되었다. 이 강이 정리가 전에는 여러곳에 돌물괴해혼잡들이 있었다.

립진강제방공사 성과적으로 되어 이제 군소재지가 큰물피해를 모르게 된것은 물론 이 일대에 양묘장이 새로 꾸려져 수종이 좋은 나무모를 많이 키워낼수 있게 되었다.

오늘도 군일군들과 로동자, 사무원들은 변모되는 립진강에서 더욱더 살기 좋은 라원으로 전변된 고향산천의 패일을 그려보며 국토관리사업에 계속 큰 힘을 넣고있다.

본사기자

향토애를 지니고 가을철국토관리총동원사업에서 혁신을 창조하고있다.

나무종자에 비끼 뜨거운 마음

한편 이렇게 말하였다.

《수림화, 원림화실현에서 나무종자문제를 중시한 당의 의도를 깊이 새겨야 합니다. 우리가 이 끝나무종자를 만났습니다.》

다음날 아침 산림경영소일군들과 로동자들이 펼쳐나갔다. 높은 산과 깊은 골짜기를 어떻게 해서인지 이 끝나무종자를 마련해야 한다고 하였다. 창성이 끝나무종자는 더욱 그러하였다.

일부 일군들은 올해 가을철에 는 겨울을 같이 생각하여 나무모밭을 잘 짓고 다음해 봄에 아카시아나무와 뽕나무나무모를 많이 키워내야 한다고 하였다. 이때 산림경영소일군이 어떻게 해서인지 이 끝나무종자를 마련해야 한다고 하였다. 창성이 끝나무종자는 더욱 그러하였다.

본사기자

그들은 나무종자를 떠나서는 고향산천을 수림화, 원림화할수 없다고 하면서 또다시 산으로 올랐다.

이처럼 종자마련에는 수종이 좋은 나무모를 더 많이 키워내어 고향산천을 푸른 숲수거진 사회주의선진국으로 전변시키려는 이곳 일군들과 로동자, 사무원들의 열렬한 향토애가 뜨겁게 솟아나왔다.

본사기자

##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배팔 박파뿌르시 친선대표단 경모의 정 표시

민주선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13일 네팔 박파뿌르시 친선대표단이

이 경모의 정을 표시하였다. 대표단성원들은 나라들사이의 친선관계발전과 세계사주화 위업수행에 불멸의 양적을 쌓아

## 내각총리 박봉주동지가 에짚트 오라스콤전기통신사 및 기술주식회사 이사장일행을 만났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총리 박봉주동지는 13일 민주주의의사당에서 리평관 대외경제성 전기통신수단 및 기술주식회사 이사장과 일행을 만나 친선적인 분위기속에서 대화를 하였다. 여기에는 리평관 대외경제성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령

제176호 주체103(2014)년 10월 10일

모범적인 단위들에 2중26호모범기대영예상, 26호모범기대영예상을 수여함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우리 당의 선군혁명명도를 높이 받들고 하여 맡겨진 인민경제계획을 넘쳐 수행한 단위 26호선반을 따라배우는 모범기대창조운동 등에 2중26호모범기대영예상을 다음과 같이 수여한다.

2중26호모범기대영예상	26호모범기대영예상	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 화천
락원시료공장 2직장	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 출하	탄광 자재과
락원시료공장 3직장	직장	락원백화점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령

모범적인 단위들에 2중26호모범기대영예상, 26호모범기대영예상을 수여함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우리 당의 선군혁명명도를 높이 받들고 하여 맡겨진 인민경제계획을 넘쳐 수행한 단위 26호선반을 따라배우는 모범기대창조운동 등에 2중26호모범기대영예상을 다음과 같이 수여한다.

2중26호모범기대영예상	26호모범기대영예상	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 화천
락원시료공장 2직장	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 출하	탄광 자재과
락원시료공장 3직장	직장	락원백화점

본사기자

본사기자

## 스위스조선위원회 위원장일행 반제민족민주전선 평양지부 방문

조선로동당창건 69돐에 즈음하여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있는 마르틴 뢰체트 스위스조선위원회 위원장과 일행이 13일 반제민족민주전선 평양지부를 방문하였다.

조선로동당대표와 지부성원들이 손님을 맞이하고 환대를 하였다. 담화에서는 최근 자기 조직들의 활동정황에 대하여 통보하고 서로의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에 대한 의견이 교환되었다. 대표들은 올해 스위스조선위원회가 미국과 남조선호전광범의 광범적인 북침전쟁행동과 반공화국도발행위를 반대하며 사회의 민주화와 생존권사수, 조국통일을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에 전적인 지지와 연대성을 보내준데 대하여 사의를 표하였다.

그러나 반공화국국창립만 69주년과 반공화국창립 10.4선언 발표 7돐이 되는 올해 위대한 대원수님들과 함께하는 원수님에 대한 남조선인민들의 열렬한 애의와 존경의 정을 그대로 담아 주신것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 로씨야에 가는 철도성대표출발

로씨야의 쓰지에서 진행되는 국제도로에서 참가하기 위해 길주철도성상을 단장으로 하는 철도성대표단이 13일 평양을 출발하였다. 평양역에서 원림종 철도성 참모장관 안셀드르 제 모인 주조 로씨야련방 특별전선대사가 전송하였다.

철도성대표단은 13일 평양을 출발하였다. 평양역에서 원림종 철도성 참모장관 안셀드르 제 모인 주조 로씨야련방 특별전선대사가 전송하였다.

## 통일로씨야당 연해변장지부대표단 도착

류드밀라 팔라바에바 지역 정치리사회 비서를 단장으로 하는 통일로씨야당 연해변장지부 대표단이 13일 평양에 도착하였다.

비행장에서 판계부본 일군과 주조 로씨야련방대표관 공사장사가 맞이하였다.

본사기자

## 북남선언들의 리행은 시대의 요구, 겨레의 지향

북남관계개선에 대한 내외의 기대와 관심이 그 어느때보다도 높아지고있는 지금 민족공동의 통일강령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존중하고 리행하는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서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북과 남은 조국통일 3대원칙과 북남관계개선에 천명된 자주의 원칙을 견지하고 우리 민족끼리의 립장에 확고히 서야 하며 공동선언들을 존중하고 성실히 리행하여야 한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은 북남관계개선의 진로를 뚜렷이 명시해주고있는 민족공동의 자주통일대강이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는 북남관계개선의 민족의 통일변영을 이룩하기 위한 제반 문제들이 명확히 밝혀져있다. 6.15공동선언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나간다는것을 천명하였다. 6.15공동선언에 의하면 민족의 자주적용명개척을 위한 절대적진리이며 민족자주, 민족단합의 리념인 우리 민족끼리가 제시되었다. 우리민족끼리리념은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나라의 평화와 평화통일을 실현할수 있게 하는 사상정신적기초이다. 더우기 6.15공동선언은 북측의 낮은 단계의 병합체안과 남측의 현상유치안으로 평화통일을 이루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나간다는것을 밝힘으로써 평화적통일의 립장을 명백히 하였다.

지금으로부터 7년전 평양에서 민족의 총의를 반영하여 채택된 10.4선언도 6.15공동선언과 더불어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새로운 도약대, 자주통일과 평화변영의 리정표이다. 10.4선언

은 6.15공동선언의 요구에 맞게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선진화, 민족공동의 변영과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제반 문제를 폭넓게 담고있다.

북남관계를 호상존중과 신뢰의 관계로 확고히 전환시키기 위한 문제, 북과 남사이의 군사적대립을 종식시키고 조선반도에서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는 문제, 헌 정전체제를 항구적인 평화체제로 전환시키는 문제, 민족경제의 균형적발전과 공동의 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문제, 사회문화분야 등 여러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을 발전시키는 문제 등 10.4선언에 명시된 문제들은 그 어느것이나 북남관계의 다방면적인 발전과 자주통일, 평화변영을 이룩하기 위한 실천적인 문제들이다.

6.15의 기치따라 활력있는 발전의 길을 걸은 북남관계는 10.4선언의 채택으로 더 높은 단계에 올라서게 되었다. 6.15공동선언을 전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도를 담은 10.4선언의 채택은 북남관계발전과 평화변영을 위한 새로운 토대를 닦고 자주통일사업의 승리에 대한 우리 민족의 확신을 더욱 굳게 해주었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은 과거의 북남관계들을 총집대성함으로써 새로운 단계에서 최고지침으로서의 절대적지위를 가진다.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자주통일과 평화변영을 실현하기 위한 사회주의외교와 리해관계를 실현하는 데서 그 무엇보다도 북남선언들을 대신할 수 있다. 6.15공동선언의 발표후 지난 10여년간은 북남선언들이 사상과 리념이 서로 다른 북과 남의 우리 민족에게 공감될수 있는 유일무이한 민족공동의 통일강령이며 어떤 정세하에서도 변함없이 높이 들고나가야 할 조국통일의 기치라

는것을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역사적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리행은 북남관계발전의 출발점이다.

화해와 단합, 대화와 협력, 통일과 번영의 옳바른 길을 밝혀주는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리행만이 북남관계개선의 전향적극면을 활짝 열어놓을 수 있다. 6.15공동선언의 발표이후 북과 남은 우리민족끼리정신에 따라 대화와 협력을 적극 추진하였다. 북남대화는 소모적인 논쟁의 과정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의의 있는 대화로 발전하였다. 이 과정에 각 방면에서 걸쳐 협력사업들이 진행됨으로써 불신과 대결의 감정이 해소되어갔다. 북남간간담회사이의 배양과 교류의 길이 넓어지는 속에 중요한 계기들이 다 민족공동의 통일행사가 활발히 진행되고 해내의 각계 통일운동단체사이의 연대연합이 강화되었다.

현시국 북남관계의 유일한 타개책을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존중하고 리행하는것이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은 북과 남의 리익을 다 같이 반영하고있으며 민족공동의 의사와 요구를 담고있다. 선언에는 최악의 긴장상태에 처한 북남관계문제를 원만히 해결할수 있는 방도가 다 들어있다. 북남선언들의 리행이 북남관계발전에서 의미나 사활적이요 절박한 문제로 나서고 있는것은 지나온 나날을 통해 실증되고도 남음이 없다. 북남선언들이 성실히 리행되면 관계개선의 흐름을 타고 걷어간 가늀, 친척상봉뿐 아니라 평화보장과 협력사업 등 모든 문제가 겨레의 요구와 지향에 맞게 보다 조속히 해결될수 있다. 6.15공동선언과 그 실천강령인 10.4선언을 존중하고 성실히 리행

나갈 때 북남관계가 신뢰와 단합, 통일을 지향하는 관계로 확고히 전환될것이라는것은 의심할바 없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이아닐로 북남관계문제해결의 열쇠이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은 반드시 존중되고 철저히 리행되어야 한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대한 태도는 북남관계개선을 바라는가 아니라 지향하는가를 가늠하는 시금석으로 된다. 북과 남의 수뇌분들이 합의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외면하면서 통일을 쟁수하지 않는것은 누구도 당연하다. 북남관계개선을 신뢰의 조성도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리행에 있다. 지나온 북남관계는 북과 남이 공동선언에 충실할 때 서로 힘을 합쳐 통일의 길을 열어나갈수 있지만 그것을 거역하고 유린하면 걸잡살 없는 대결과 파국의 낭떠러지로 끌어내리게 된다것을 교훈으로 새겨주고있다.

지금 북남관계는 대결의 악순환을 지속하느냐 아니면 평화와 통일의 길로 나가느냐 하는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놓여있다. 북과 남이 사상과 체제의 차이를 넘어 서로 뜻과 힘을 합쳐 통일과 평화변영의 새시대를 열어나갈수 있는 북남선언들이 있으면서도 대결의 역사에 중지부름 찍지 못한다는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 역사적인 북남선언들을 범함없는 리정표로 삼고 북과 남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과 평화변영을 이룩해나가는것은 우리 공화국정부가 확고부동한 립장이며 의지이다. 남조선당국이 정경으로 긴장완화와 북남관계개선을 비한다면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존중하고 리행하는것으로 실천적의지를 보여 주어야 한다.

심 철 영

## 10.4선언발표 7돐에 즈음하여

### 조국통일범민족연합 재미본부 선언문 발표

역사적인 10.4선언발표 7돐에 즈음하여 조국통일범민족연합재미본부가 4일 선언문을 발표하였다.

선언문은 민족본질의 역사를 통일의 역사로 바꾸어놓을

6.15공동선언에 이어 채택된 10.4선언은 민족의 가슴마다에 통일에 대한 희망을 안겨주었다고 지적하였다.

북남공동선언들이 리행되었더라면 우리 민족은 통일의 기

### 청년통일도론회 도교에서 진행

조선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의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였다. 북남공동선언들을 리행하는 길에 조국통일을 이었다고 인정하였다.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조국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나가기 위하여 청년들이 단결된 힘으로

를 누릴수 있었을것이라고 밝혔다. 민족의 통일성취는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이 리행될 때만이 가능할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공동선언들을 철저히 고수, 리행하여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선언문은 강조하였다.

### 로므니아정계인사 답화 발표

역사적인 10.4선언발표 7돐과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47주년인 34돐에 즈음하여 로므니아사회주의당 최고리사회 위원장 바셀메 오를레아누가 3일 답화를 발표하였다.

그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조선이 북과 남으로 갈라진 지 70년이 되어오지만 조선의 통일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조국통일은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김정일총비서의 한평생의 노력이었으며 전체 조선인민의 최대

의 민족적사건이다. 김일성주석께서는 34년전 가장 합리적인 조국통일방안인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을 제시하시고 그 실천을 위해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모든 노력을 다하시였다.

올해는 조선의 북남사이에 《북남관계발전과 평화변영을 위한 선언》이 발표된지 7돐이 되는 해이다.

나라의 통일문제를 조선인민끼리 자주적으로 해결할것을 천명한 6.15공동선언의 근본원칙을 다시금 확인하고 북남관계

발전과 평화변영을 위한 실천적인 방도들을 전면적으로 실천 10.4선언발표는 조선민족에게 통일에 대한 새로운 희망을 안겨준 역사적사건이었다.

로므니아사회주의당 최고리사회는 남조선당국이 북과 남사이에 합의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정신에서 통일문제를 해결해나갈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김정은 최고령도자각하의 혁명적령도밑에 조선로동당과 조선인민이 나라의 통일과 강성국가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할것을 축원한다.

【조선중앙통신】

## 애국위업의 한길에서

### 어머니들의 의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좋은 주제의 사상체계, 련도체계를 철저히 세우고 각각 조직과 단체들을 더욱 강화하며 민족교육사업과 새 시대, 동포상양인들과의 사업을 현실발현의 요구에 맞게 참신하고 활력있게 벌려 총련을 전방이 굳건하고 군중적정신이 강하며 전도가 양양한 위대한 애국조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제일본조선민주녀성동맹 산하조직들에서 대을 강화하고 민족교육을 고수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에 큰 힘을 쏟고있다.

녀성동맹 군마련본부에서는 제일조선인운동에서 민족교육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며 그 성장과 발전에 따라 애국운동의 승패가 좌우된다는것을 명심하고 민족교육을 고수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리고 있다. 그들은 학교사랑을들 비롯하여 여러가지 운동과 함께 교육원리를 확충하기 위한 사업에 큰 힘을 쏟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카거리신 진로를 따라 제일조선인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를 창조하는 열기가 일어나갈데 대한 대회의 사상과 정신을 그대로 받아안은 각지 조직조직들에서는 조직을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믿고 따르는 애국충정의

의 자몸도 마련되었다. 동포녀성들의 한결같은 마음을 안고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회의에 참가한 어머니대표들은 일 본당국의 천만민족 민족교육차별행위를 폭로규탄하는 맹렬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투쟁의 결과 일본산하의 한 심의위원회는 일본정부에 조선학교차별정책을 즉시 철회할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군마련본부에서는 이룩된 성과들과 경험들을 더욱 공고히 하면서 학교이민회, 학교외의 긴밀한 연계밑에 민족교육의 토대를 더욱 강화해나가고있다. 다목적 종합모임과 마음과 힘을 합쳐 선대들이 피어난 투쟁으로 생취한 민족교육의 권리를 끝까지 지켜나가겠다는 이들의 신념이요 의지이다.

한편 녀성동맹 아이처럼본사에서 세 세대 녀성들과의 사업을 힘에 넣어 균중핵심육성사업에서 큰 진전을 이룩하고있다. 본부에서는 지난 기간 산하 단위조직들의 사업성형을 총화하는 과정에 일꾼이 된다고 하여 저러한 핵심성원으로 되지는 않는다는것을 심각한 교훈으로 새겨두고 동포사회를 띠고나갈 새 세대 동포녀성들에 대한 교양사업을 꾸준히 벌리었다. 본부에서는 지난 기간 사업에서 나타난 현상들을 바로잡고 새 세대들과의 사업을 결구적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조직사업을 진행하였다. 또한 새 세대 동포녀성들로 《조국사랑, 동포사랑, 후대사랑에 대하여》와 《변영하는 조국과 동포들의 행복》을 주제로 하는 여러차례의 토론회를 조직하였을 때, 로론회는 동포사회를 더욱 활성화화시키면 새 세대 녀성들이 그 담당자, 기둥이 되어야 한다는 각오를 가지게 하는 중요한 계기로 되었다.

### 동포청년들이 앞장선다

제일본조선청년동맹 제23차대회가 진행된 이후 각지 조직조직들이 들끓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카거리신 진로를 따라 제일조선인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를 창조하는 열기가 일어나갈데 대한 대회의 사상과 정신을 그대로 받아안은 각지 조직조직들에서는 조직을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믿고 따르는 애국충정의

대한 교양사업을 집중적으로 벌려 조직체계를 끊임없이 확대하는 사업을 적극 다그치고있다.

이 사업에서는 총련 조선대학 교조위원회가 앞장서고있다. 위원회에서 서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보내주신 축하문고를 심장으로 받고 총련 제23차 전국대회발표문을 철저히 집행하기 위한 애국애족운동을 조지조직들이 선봉적역할을 수행하도록 잘 이끌어주고있다.

그리고 조선대학 졸업생들을 배심원으로 조직조직의 두리에서 뛰어난 학생들을 발굴하고 교육시키고 있다. 또한 조지조직을 위한 교육사업에 앞장서고 있다. 애국위원들의 요구에 맞게 조직을 동포청년들의 지향을 꽃피워주는 참다운 청년단체로, 힘있고 약동하며 매력있는 청춘의 활무대로 꾸리기 위해 지혜와 열정을 바쳐나가고있다. 애국위원들의 요구를 위해, 동포사랑의 미배를 위해 헌신한다는 긍지와 보람있고 모든 조지조직원들이 뛰고 또 뛰고있다.

제일조선인운동의 리창한 앞날의 주인공이라는 자각을 안고 힘차게 나가는 이런 미더운 조지조직원들에 의해 총련의 애국위업은 새로운 전성기를 향해 걸기차게 전진하고있다. **관 열 국**

최근 우리의 주동적인 노력에 의해 북남관계가 개선할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것은 내외의 커다란 지지와 환영을 불러일으켰다. 지금 우리 겨레 누구나 북남관계가 파국의 수렁에서 벗어나 새로운 발전의 길에 들어설것을 한결같이 바라고있다.

바로 이런 중요한 시기에 조국과 민족의 지향은 받은 인간쓰레기들이 우리 공화국의 존엄과 체체를 약탈할것을 해를 배라살포움을 강행하였다. 이것은 개인의 첫 걸음을 떼기 시작한 북남관계를 다시금 국도의 위기에 몰아넣었다는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이번 사태는 너무나 뼈는 비방중상이로 대외발음으로 자각하고 해치는 배라살포움을 북남관계에 얼마나 큰 장애로 되고있는가 하는것을 다시금 뚜렷이 보여주었다.

인간쓰레기들의 배라살포망 등은 그들주도의 자발적인 행동이 결코 아니다.

변천한 직업이나 생존수단도 없이 남조선당국이 던져주는 몇몇의 돈으로 구차스러운 목숨을 겨우 부지켜나고있는 추종자들이 모처럼 마련된 북남관계개선의 분위기를 깨버리는 망동에 스스로 나선다는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 남조선당국의 모진파고차가 없어 인간쓰레기들이 어떻게 삼행한 경계에는 없는 군사경찰선일대에 빠졌어 나타나 배라살포움을 강행할수 있었다는, 배라살포망배라살포움을 는 사

실상 우리에게 대한 선전포고이고 그 것이 북남관계에 들어킬수 없는 파국적영향을 미친다는것은 지난 시기의 실례들이 잘 말해주고있다. 하기에 우리는 북남관계가 다시는 파국에 처하는 불미스러운 사태가 벌어지지 않기를 바라며 며칠전에도 남조선당국이 인간쓰레기들의 배라살포망 등을 강경 지지시킬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피들은 배라살포망 편을 저지시키려는커녕 그 무슨

## 《인권》모략, 체제대결광증의 발로

《자물적판단》이니, 《법적근거가 없다.》니 뉘니 하는 황당한 꾀를 늘어놓았다. 이것은 남조선당국에 인간쓰레기들의 배라살포망을 증시시킬수 없을 한 의사도 없다는것을 립증해주었다.

하더라면 피피페당이 배라살포행위를 왜 지지시키지 않고있는가 하는것이다. 그것은 우리 공화국의 존엄과 체제를 위협하는 배라살포소동이 저들이 의외와 착당하여 끈기있게 벌리고있는 반공화국 《인권》 모략소동의 중요한 한 고리이기때문이다.

동쪽에 대한 국도의 적대의 시, 병적거부감에 물젖어있는 권위적진세력에 걸터서 《인권》 모략소동은 반공화국대결을 위한 기본수단으로 되고 있다. 남조선의 현 집권세력은 《인권》 문제해결을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느니, 《대북정책의 핵심과제》라느

니 하고 떠들어대면서 력대 그 어느 통치체제에도 반공화국 《인권》 모략소동은 기승을 부리고있다. 《국회》에서 《북인권법》이라는것을 기어이 통과시키려고 발광하고있는 사실, 《북인권기구지속》이라는것을 만들어놓고서 허황한 남조선당국에 권위를 남조선당국에 제기하고 하면서 인간쓰레기들을 내세워 상대방을 증상모독하는 배라살포움을 계속 벌리던 배라살포망이 어떻게 될것인가 하는것은 불보듯

변하다. 남조선당국은 조지조직을 야망에 사로잡혀 모략적

처벌 마련된 북남관계개선의 분위기를 흐려놓고있다.

우리는 공화국의 신성한 존엄과 체제를 떨궈내려도 건드리지 않을에 대해서는 추호의 자비도 못둔다. 우리가 명백히 밝힌바와 같이 남조선당국이 배라살포망들을 계속 허용하거나 묵인한다면 북남관계는 수습할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될것이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도 남조선당국에 있는것이다. 남조선당국은 이제라도 불미스러운 과거와 결별하고 판계개선을 발맞추고 나서겠는가 아니면 민족을 유혹하고 기만하는 눈물으로 시간이나 기절 끌겠다는가 하는 저들의 속심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 남조선당국은 우리의 경고를 명심하고 심사숙고하여야 한다. 지금 은 겨레는 남조선당국의 음모적움여에게 주의하고있다. **본사기자**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에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가고있다. —의학과학원 약학연구소에서— 본사기자 신 총 혁 적음

### 독자의 편지

#### 우리의 사회주의보건제도가 제일

저는 고마운 보건인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싶어 펜을 들었습니다. 몇몇날 제가 호흡기질병에 걸린 어린 딸을 업고 김일성종합대학 병원에 갔을 때였습니다. 이번이후 몇 두정부의과학강사의 입원실내에 들어서자마자 강좌에서는 말그대로 모든 의료인원이 펼쳐나섰습니다. 의료의 사생활들과 간호원동무들이 아이를 받아안고 검사실들로 뛰어들어다니며 어느새 수혈장

안으로 들어가는것이였습니다. 누구도 잠깐이나마 벌어진 일이 보여 자안이 병병해있는 것을 보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던 강좌장 리평생, 파장 오성환, 의사 최창현선생님을 비롯한 의료인원들의 모습에 지금도 생생합니다. 수술이 성과적으로 끝나고 며칠이 지난 어느날 저는 또 한번 놀라게 되었습니다. 밤에의 침대머리맡에 내리류들과 세면도구, 건강회복에 좋은 보양과와 간식들이 놓여있는

것이였습니다. 그것이 의료인들과 간호원들이 마련한것임을 알았을 때 저는 드디어 격정의 눈물을 쏟고싶었습니다. 진정한 우리 딸애는 고마운 우리 나라 사회주의보건제도의 혜택속에 세상에 두번다시 태어났습니다. 저는 이 귀중한 제도를 살로써 더욱 빛내어나가는데 자신의 힘과 정열을 강그리 바쳐나가겠습니다. **틀강군 립송리 7인민반 정 열 회**

인생결은 선택의 연속이라고도 한다.

자신의 리익과 사회와 집단의 리익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가에 따라 삶의 가치와 생의 보람이 결정된다.

오늘날 우리 시대 청년들속에 있는 자기에 대해 향유의 권리보다 조국앞에 지닌 헌신의 의무를 먼저 선택함으로써 청년을 빛내고 사회와 집단에 미덕의 향기를 내뿜어주는 아름다운 인간들이 수없이 많다. 박천군 삼양협동농장 농장원 계광월동무도 그들중의 한 사람이다.

이대 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참된 삶의 가치는 사회와 집단, 조국과 인민, 당과 혁명을 위하여 한생을 바치는데 있습니다.》

지나해 계광월동무가 박천군 충서리에 살고있는 특유영에군인 박성호동무에게 청혼하였다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마을사람들은 크게 놀라지 않았다. 그것은 그들이 계광월동무의 사랑됨을 너무나 잘 알고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마음씨 곧고 일쫓게 또한 살뜰하며 농장의 사랑을 받는 청년였으며 명철났던 면진경년동무와 영에군인들끼리 뜻을 찾아 그들은 고무해준군 하던 청년동맹조직원이었다. 더우기 그의 오빠 계광월동무가 조국을 위하여 자기의 청춘을 바친 특유영에군인이라는 사실은 사람들에게 계광월동무는 무를 한생의 반역자로 선택한 처녀의 진정을 충분히 헤아리실

## 그가 선택한 참된 삶의 길

그가 선택한 참된 삶의 길

있게 하였던것이다. 지금으로부터 10여년전 계광월동무가 마을의 축복속에 결혼식을 할 때 계광월동무의 눈에는 자기의 형님이 될 김문영동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녀성으로 인정되었는 눈물이 나도록 고미웠다. 하지만 그보다 더 고맛고 님사로운 사랑이 있었다는것을 나어린 그 시절에는 미처 몰랐다. 김문영동무의 소행을 기록하여가서서 인정어린 감사와 사랑을 보내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전국헌원미봉영성자대회에 영에군인들의 안내들도 불러주시였을 때, 장군님을 모시고 찍은 영명의 기념사진과 사랑의 선물들을 보는 순간 계광월동무가 받아안은 충격은 얼마나 컸던가.

그 과정에 승서리에 살고있는 박성호동무를 알게 되었으며 계광월동무와 함께 수습리길을 찾아가 그를 만나보았다. 비록 두눈을 잃고 앉을 못 보지만 농장일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려고 손바닥에 물집이 지도록 새기출을 얻던 박성호동무의 모습은 처녀의 마음을 뜨겁게 하였다.

남도 처녀집으로 돌아온 처녀는 부동발적으로 박성호동무와 일생을 함께 할 결심을 다졌었다. 여자는 말없이 담담히 애조로 어머니가 나직한 어조로 딸에게 물었다. 《네 마음은 알았나. 네 오빠를 봐서라도 영에군인들을 남쳐 달할수 없는게 우리 집이지. 하지만 네가 택한 길이 결코 한것보다 더 험할수 있다는것을 생각해왔어?》

처녀는 눈물맺힌 눈으로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다. 《어머니, 오늘 성호동지와 위원장동지가 마주앉아 이야기를 나누다가 담배를 피웠는

데 제가 그만 무의식중에 제페이를 성호동지가가까로 옮겨 놔요.》

그날 아침 그를 만나지 못한 박성호동무는 불행스럽게도 손에 담배를 물었다. 순간 당황해하는 박성호동무를 보면서 처녀는 왠지 정을 가까스로 참았다. 그때 참았던 정을 더듬어 처녀는 눈물을 흘리며 부모들에게 절절히 말했다.

《어머니, 그집도 우리 집도 다 특유영에군인의 가정이에요. 제가 누리고있는 행복이 얼마나 귀중한 사람들의 피어린 희생의 대가로 지켜지고있는가를 난 오늘 똑똑히 깨달았어요. 절 믿어주세요!》

딸은 눈물을 쏟으며 어머니의 품에 안겼다. 《광월아! 어머니의 따스한 손길이 딸의 어깨를 쓰다듬을 때 파목한 아버지의 눈가에도 맑은것이 고였다. 다음날부터 처녀의 얼굴은 송서리로 위염이 오고갔다. 자기의 진정을 선뜻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박성호동무의 마음을 돌려세우기도 쉽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물려서서 않았으며 불같은 진정은 박성호동무의 마음속에 스며들기 시작하였다. 그러던 어느날 계광월동무는 또다시 충서리로 계광월동무는 이제 제 집처럼 정든 집이어서 그는 총각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은채 방간도 정돈하고 부엌에 버려가 동자질도 하였다.

박성호동무는 자기의 귀전에 들려오는 처녀의 발자욱소리며 자기 어머니와 다정한 나누는 말소리들을으면서 계광월동무의 모습을 그려보았다.

《어서이 그의 상상속에는 예술영화 《해 고향의 처녀들》의 화면이 자꾸만 떠올랐다. 날이 저물수록 계광월동무가 집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마당에 따라나서 박성호동무는 투박스레 말했다. 《우리 집안의 물건들은 다 내 귀속에 오 귀까지 고쳤어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집안정리를 할 때 방안의 물건들을 마음대로 옮겨주세요.》

《왜? ..나와 함께... 있지 않으면 이걸 명심해야 하요.》 그때 처녀의 얼굴에 기쁨의 미소가 어려는것을 박성호동무는 심감으로 느꼈다. \* \* \* \* \*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계광월동무의 소행을 쓴 나라 인민이 다 알고들 품을 내세워 주시였다. 박성호동무와 계광월동무의 결혼식이 멀지 않아 박천군 인민들의 커다란 관심속에 열렸다. 우리 당의 품속에 한송이 꽃으로 피어나 사회주의 내 조국에 아름다움을 더해주는 계광월동무. 사람들은 그 모습에서 인생의 참다운 선택이 어떤것인가를 다시금 되새겨보게 될것이다. **심 철 진**

# 미국이야말로 핵전과, 핵군비경쟁의 장본인이다

최근 국제문제전문가들속에서 미국의 불공평한 핵정책이 존재하는 한 핵무기 전과방비조약의 존재가 불필요하다는 주장들이 제기되고있다. 중국의 홍콩 방송 위성TV방송을 비롯한 여러 나라 보도 기관들이 그렇게 보도하고있다.

그 주장들을 요약하면 첫째로는 핵문 제에서 미국이 이종기준을 적용하고있고 둘째로는 핵무기전과방비조약이 매우 공 정치 못하다는것이다.

내용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미국은 이스라엘의 핵보유는 목인화 이 때문에 조건의 핵보유와 이란의 핵 개발은 문제시하면서 제재를 가하고있 다. 또 핵무기전과방비조약의 해당 내 용을 무시하고 자기 비위에 거슬리는 나라들의 평화적핵활동을 비법으로 모 사하고있으며 핵위협을 가하여 그 나 라들을 굴복시키려고 악랄하게 시도하 고있다. 핵무기전과방비조약은 미국, 영국, 프랑스 등 몇개의 대국들에만 기 술적 및 경제리득을 제공하게끔 제 도를 세워놓았다. 미국이 이종기준 과 핵무기전과방비조약의 불평등은 결 국 일부 주권국자들의 반발과 핵무기 전과방비제도의 붕괴를 초래하는 근본 원인이라고 되고있다. ...

이것이 바로 국제문제전문가들의 주장 이다. 옳은 평가라고 할수 있다.

미국이 핵정책을 핵무기 기본수단으 로 하고 핵무기전과방비조약에 의해 담 보되는 지배주의정책, 세계체제정책 이다. 따라서 핵무기전과방비조약이 붕괴 되면 미국이 아무리 많은 핵무기를 가지 고있다고 해도 핵우세는 끝났자라고만 다. 핵무기가 대항살상무기들중에서도 가 장 위험한 무기라는것은 문명인치고 모 르는 사람이 없다.

제2차 세계대전말기에 미국은 일본 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핵폭탄을 투

하하여 그 지역들을 제3세계로 만드는 범죄적행위를 감행하였다. 세계는 핵무 기가 어느 정도의 상상력과 파괴력을 가지고있는가를 똑똑히 알게 되었다.

과학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핵무기는 남북 소용화되는 반면에 위 력은 파괴적가보다 더 높아지고있다.

1961년에 미국의 노스 캐롤라이나 주에서 《B-52》전략폭격기에 탑재했 던 수소탄이 땅우에 떨어져 폭발하면서 상해에 놓였던적이 있었다. 이 수소탄은 히로시마에 투하되었던 원자탄의 26 배나 되는 위력을 가지고있었으며 폭발 하였더라면 수도 워싱턴과 필라델피아, 뉴욕 등 미국의 넓은 지역을 죽음의 채 속에 몰아넣을수 있는것이였다고 한다.

본토와 세계 여러 지역들에 이보다 더 위험이 큰 핵무기들을 보관하고있는 미 국은 핵무기현대화에 더욱 본격적으로 달려나가고있다.

오바마행정부가 낡은 핵무기와 핵판 렘시설들의 개조를 추진하는 문제를 놓고 토의를 진행하고 앞으로 30여년동안 핵무기현대화에 1조US를 투자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단적인 실례이다.

자료에 의하면 미국은 올해에 1950년대이후 가장 큰 규모의 자금 을 핵무기의 연구, 개발, 시험생산에 할 당하였다. 앞으로 10년간 핵탄두를 현 대화하는데 3550억US를 투입하려 하는것이 미국의 야심적인 계획이다.

과연 이것이 《핵무기없는 세계》를 건 설하기 위한 일인가. 핵무기에 의거하여 세계를 제패하려는 망상이 미국을 위협 하고 수평평등으로 끌고가고있다.

국제사회는 오바마정권이 몇해전에 《핵 무기없는 세계》구상을 내놓고 마지막 미 국의 핵정책이 변한것처럼 유세를 부린것 을 생생히 기억하고있다. 하지만 현실은 오바마정권의 《핵무기없는 세계》구상이

미국이 침략적인 핵정책을 가리우고 국제 사회를 기만하기 위한 녹거피라라고 불려 한것이라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핵무기를 다른 나라들의 자주권을 위 험공갈하고 유린말살하는데 필요한 만능 수단으로 간주하고있는 미국의 핵정책에 비친 침략적, 지배주의적야망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

미국의 기만적이고 불공평한 핵정책, 세계최대의 핵보유국이 끊임없이 감행하 는 핵공갈은 그 피해국들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미국이 의거하고있는 핵우세, 핵무기전과방비조약을 없애버리는데로 저항하게 하고있다. 왜냐하면 핵무기를 가지지 않고서는 미국의 핵위협에서 벗 어날수 없기때문이다.

미국은 이것을 제일 두려워하고있 다. 21 세기에 들어와 핵보유의 위험 은 더 많이 느끼고있는것은 미국이 잘 못 작성하고 잘못 실시해온 핵정책이 초래한 불가피한 결과이다.

미국이 핵무기전과방비조약을 한사코 유지해보려는것은 날이 갈수록 커지는 핵불안증, 핵공포증에서 벗어나기 위한 출로로 되고있다.

현존 핵무기전과방비조약은 미국 등의 핵독점을 고수하고 그 특권체제를 법제화 하려고 만들어낸것이다. 조약에는 미국을 비롯한 핵보유국들의 핵무기시험, 생산, 배비 등 핵활동을 금지할때 대한 문젠이 규정되어있지 않다. 이와 같은것은 핵 무기개발, 그 전과와 관련한 사항에서 핵 보유국들은 철저히 면책해두고 비핵국가 들에만 옮기기를 걸어놓은 국제적인 조약 들중에서 가장 불평등한 조약이다.

물론 조약 제1조는 핵보유국들의 전과방비의무를 규정하였었다. 그러나 사 실은 하지 못하게 되어있다.

기성의 핵보유국들에 베푸는 조약의 《판대상》을 리용하여 미국은 차별적인 이

중기준을 적용해왔다. 앞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미국은 이스라엘의 핵보유를 묵인하 였을뿐아니라 옴으로양으로 도와주었다.

조약의 제4조는 조약에 가입한 나라 들의 평화적핵활동권리를 규제하고있다. 그에 따라 비핵국가들도 평화적핵활동권 리를 가지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반미자주적인 비핵국가들에 대 해서는 그 권리를 빼앗기 위해 핵무기로 위협공갈하는 당도로서 서슴치 않고있다.

우리 나라가 비핵국가로 있을때에도 그 첫 번째 대상이었다. 지금은 이란이 되고있다.

우리 공화국은 미국의 가중되는 핵위 협을 종식시키기 위하여 핵보유국이 되 었다. 우리의 원칙에서 우리는 부득불 그 려게 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미국의 핵무기현대화책동은 여러 핵보 유국들로 하여금 자기들의 핵무기현대화 에 박차를 가하게 하고있다. 결국 세계 의 비핵화를 바라는 인류의 꿈을 실현할 날은 앞당겨지는것이 아니라 갈수록 멀 어지고있다.

미국은 세계적인 핵전과, 핵군비경쟁 의 장본인이다. 핵무기전과방비제도를 붕괴시키고있는 책임도 전적으로 미국자 신에게 있다.

까자 호스판대통령 나르바에브는 《핵무기전과방비조약은 농작지 못하다》 라는 제목으로 된 글에서 세계의 안전 보장체제는 핵무기에 의해서가 아니라 평화에 의한 인류공동의 목적에 기초하 여 수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의 말대로 되지만 핵위협공갈의 주 범인 미국부터가 핵무기현대화를 당당 중시하고 모든 핵무기를 폐기하여야 한 다. 그렇게 할 때만이 핵무기가 없는 세 계를 창조할수 있다.

미국의 핵위협이 계속되는 한 우리의 핵무력은 질항적으로 계속 강화될것이다. 리 경 수

## 백전백승의 조선로동당

위대한 령도 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 로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되신 17살과 당창 건 69년에 즈음하여 로 씨야, 영국, 몽골에서 토론회, 사진 및 도서전시 회, 영화감상회가 5일 과 6일에 진행되었다.

행사장 옆에는 위대한 김정일동지와 영웅적일동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당년설령도업적과 선군혁명업적들을 담은 사진문헌 들이 전시되어있다. 또한 백두산천출원인들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과 백전백승 조선로동당의 참모습을 소개하는 사진, 도서를 전시되어 있다.

영화감상회에서는 《오늘의 평양》을 비롯한 우리 나라 영화들이 상영되었다.

행사장에는 해당 나라 의 각계 인사들과 군중 이 참가하였다.

로씨야연방공산당 연례변화 위원회 제1비서는 우리 당의 창 건과 강화발전에서 불멸의 공헌을 하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을 가장 숭고한 경의를 드리고 다음과 같이 토론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와 김정일동지께서 창건하시고 강 화발전시키신 조선로동당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현명한 령도밑에 인민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는 당으로서의 위 용을 더욱 높이 떨치고있다. 김정은동지의 령도에 의하여

## 여러 나라에서 경축행사 진행

조선에서는 세인을 놀래우는 기적이 려이 창조되고있다. 영구혁명적공산당(광스-메닌 주) 중앙위원회 총비서는 다 음과 같이 토론했다.

조선로동당은 지금으로부터 69년전 김정일동지에 의하여 창건되었으며 김정일동지의 령도밑에 하나의 사상에 기초하 여 굳게 단결된 강위력한 당, 계 혁명적당들의 귀감으로 강화 발전되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선대수령들의 불멸의 당년설 령도를 길이 빛내이시기 위해 김정일-김정일주위를 조선로동 당의 지도사상으로 정식화하시 으며 김정일동지께서 당의 영원한 총비서로 높이 모시도록 하시었다.

몽골대연도협회 터그스 에르 조리구라부 책임자는 영화를 감상하고 전후 페히로 되었던 평양을 세계적인 도시로 훌륭히 일떠세운 조선인민의 영웅적정 신에 감동을 금할수 없다. 조선 로동당의 현명한 령도가 있고 전체 인민이 일심단결하여 투쟁 한 결과라고 말하였다.

영국에서 진행된 행사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축언이 채택되었다.

조선로동당창건 69년에 즈음 하여 인도네시아투쟁민주당에 서는 《조선로동당과 강성국가건설》이라는 주제의 좌담회와, 라 비르라 바르바라 페르바라에는 토론회와, 콜롬비아연방 의사와 아시아 아그로 아공 자야 회사에서는 영화감상회가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의 기 간에 진행되었다.

영화감상회에서는 《주체사 상담》, 《당찬건기념담》을 비롯 한 우리 나라 영화들이 상영되 었다.

인도네시아투쟁민주당 대의 판계과장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 였다.

조선로동당이 강철의 당, 불패의 당으로 위용떨치고있는것은 김정일동지께서는 일제제를 처부 시고 조국해방을 이룩하신 후 1945년 10월 10일 10년 공로인민 김정은대회시제를 중심으로 전 민들의 애정을 높여주시어 조신 로동당을 창건하시었다.

김정은 원수의 령도밑에 조선로동당은 김정일동지께서 김정일동지께서의 당으로 더욱 찬연히 빛을 뿌리고있다.

콜롬비아연방회의사장은 우리 나라 영화들을 보고 당을 사랑 하는 대기비가 있는 나라는 조신박애이다. 이것은 조선인 민이 조선로동당을 절망이 신뢰 하고 그 두리에 끌림같이 몰려 있었다는것을 보여주며 당과 운명을 같이하겠다는 그들의 신념의 표시이기도 하다. 김정은각하의 탄신축에 조선에서는 수많은 기념식전축출들이 훌륭히 일떠 서고있다고 격찬하였다.

## 남조선주둔 미군은 조선통일의 주요장애물

### 로씨야 신문을 게재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비문 제시 34권에 즈음하여 로씨야 신문 《레리부나》 8일부자 글을 게재하였다.

신문은 10월 10일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김일성주석께서 조선의 평화통 일정책을 제시하신지 34돌이 되는 날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적고하였다.

조선에는 사람들의 심금을 울 리는 하나의 성구로 된 부름이 있다. 조선은 하나다. 북과 남의 조선인민은 이 부름을 같은 심 정으로 받아들이고있다.

1980년 10월 10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자이신 김일성주석께서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고려민주련방공 화국창립방안을 제시하시었다.

이 방안의 내용은 북과 남의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두고 련

방제방식으로 조국을 통일하는 것이다. 조선은 예나 지금이나 민족의 통일이 필수불가결하 다는데로부터 출발하고있다.

근본적에는 전체 조선민족의 지 향과 리에 맞게 나라의 통일을 평화적으로 실현할수 있게 하는 현실적인 방안이다.

김일성주석의 조국통일업전은 김정일령도자의 의해 계승되었 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북남 최고위급회담을 마련하시고 6. 15공동선언을 채택 발표하시 었다. 선언은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았다.

공동선언에는 통일을 위한 원 칙들이 명시되었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것은 통일문제를 외세 의 간섭이 없이 민족이 힘을 합 쳐 해결해나간다는것이다. 그러나 그후 남조선당국은 이 원칙들을 해버렸다. 여기에 련방제에 기

초한 조선의 통일을 달가워하지 않는다. 조선의 영향이 없지 않았 을것이다.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통일위업을 전진시키시려는 김정일령도자를 수반으로 하는 조선의 노력들은 《홍수통일》만 을 고집하는 남조선과 미국의 반대에 부딪치곤 하였다.

조선은 《홍수통일》을 절대 로 허용하지 않을것이다.

지난 시기 형식상 《유엔군》의 기밀을 들었지만 사실상 유엔군 이기 오해진부러 인연이 없는 남조선주둔 미군도 조선통일의 주요장애물이다.

미국이 지역에서 벌리는 모든 군사활동과 마찬가지로 남조선에 서 수를 미군은 조선의 불평을 고 착시키고 인위적인 대결을 사촉 하고있다.

미국은 남조선에 포기하지 않 으려 하고있다.

## 국경지역들에 주의를 돌릴것을 요구

### 미국이 경고

이란대통령 하산 루하니가 6 일 한 집회에서 연설하면서 국경 일 가까운 농촌지역들에 특별한 주의를 돌릴것을 요구하였다.

그는 이 지역에서는 외부로부터 의 침입을 억제하는 역할을 수 행하고있으며 이곳 인민들은 전 투원들이자 국경경비대원들이 라고 말하였다.

국경지역 마을들의 역할이 중요한것만큼 정부가 이 지역 의 개발사업에 보다 큰 노력 을 기울여야 한다고 그는 강조 하였다.

## 사회적진보와 발전을 위하여

윤반로케트 발사

로씨야에서 최근 윤반로케트 《브로로-M》을 발사하였다.

바이스푸르 우주발사장에서 발사된 윤반로케트에는 중계 위성 《루즈》와 가속블록 《브 리즈-M》이 탑재되어있었다 한다.

로씨야연방 우주총국이 이에 대해 밝혔다.

경제성장 목표

인도네시아에서 앞으로 3년 안에 경제성장률을 7%이상 끌어올릴것을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국제총생산성 전망

인디에서 4월에 시작된 현 월계년도에 국제총생산성장률 이 6%에 달할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0월 이 나라 중앙통계국 이 이에 대해 밝혔다.

특별농업기대창설계획

슬리랑카정부가 7일 첫 특별 농업기대를 창설할때 대한 계획 을 발표하였다.

나라의 동부주에 창설될 농업 지대의 부지면적은 3 000ac(에 이커)에 달할것이라 한다.

거기에는 농산물 및 식료품과 공공장들과 도로, 관개시설을 비롯한 하부구조들이 건설되리라 된다.

문화예술발전 을 위한 조치

케냐정부가 나라의 문화예 술을 발전시키기 위한 특별기금을 설립하였다.

기금설립은 나라의 문화예술 을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며 특 히는 민족적인 내용을 기본으로 하는 영화 및 음악작품들을 장려하려는 데 목적을 두고있다.

협 조

아르메니아와 까자흐스탄이 8일 문화, 예술, 체육 등 분야에 서 쌍무협조를 강화하기로 합의 하였다. 이에 앞서 6일 나미비 아와 쓰레스비는 농업수리건설 에 있어 호상 협력할것을 포함한 방대 각서에 조인하였다.

한편 남아프리카, 탄자이 등 여러 나라들이 10일 기후변화 방지사업에서 협조를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합의는 남아프리카에서 진행 된 이 나라들의 상공회의에서 이루어졌다.

합의에 따라 회의참가국들은 2015년에 기후변화방지에 관 한 국제적협정을 채택하는데서 공동보조를 위하여 이 분야에 서는 국제적인 협력을 강화해나 간다고 한다.

[조선중앙통신]

## 여러 나라에서 자연 피해

미국 미주 리주의 콘트루 향의 우크라이나 시 위

부당한 교육정 책을 반대하는 대대적인 시위들이 일제히 벌어 졌다.

시위들은 약 8만명의 군중 이 참가하였다. 그들은 거리들 을 따라 행진하면서 학생들의 배를 진리를 침해하는 그릇된 교육정책을 규탄하였다.

8월 주의 퍼구스시에서 백인경 찰에 의한 흑인살해사건이 발생 한데 이어 이번에도 같은 살해 인민행이 또다시 강행되는데 대해 강력히 규탄하였다.

이탈리아의 로마를 비롯한 주요도시들에서 10일 당국의

미국이 캘리포 니아주에서 쓰러 산 불로 피해를 입었다.

주의 한 국립공원구역에서 일 어난 산불로 약 130ac(에이커)의 산림이 불타버리고 60세대 의 주민들이 긴급대피하는 소동 이 벌어졌다.

일본에서 최근 태풍에 의 한 인명피해가 확대되고있다.

나라의 서남부와 중부지역을 휩쓴 태풍은 8일현재 사망자 수가 9명으로 늘어났다.

한편 일본의 온파제 산에서 9월 27일에 일어난 화산분출 에 의한 인명피해가 확대되고 있다. 1일현재 사망자수는 47 명으로 늘어나고 많은 부상자가 발생하였으며 화산재가 주변지

여러 나라에서 자연 피해

역을 뒤엎어 생태환경이 심히 오염되었다.

매치포의 서부지역에서 8 일 리히터척도로 6.2의 지진이 일어났다. 진앙은 엘 도라도도 부터 서남쪽으로 121km 떨어진 바다수역에 있었다 한다.

뉴질랜드 노스섬의 플렌티 먼에서 6일 리히터척도로 5. 1의 지진이 일어났다. 진앙은 무루 파라루부터 서쪽으로 약 25km 되는 곳에 있었다.

폴로비아의 북부지역에서 6일 6번에 의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버락은 11명이 목숨 을 잃고 13명이 부상당하였다.

인도네시아의 북부주마드

자연 피해

제가 3 000m 높이 에서 붕괴되었다.

이란 화산이 4차례 폭발하였다 고 한다.

다양한 참관자를 갖춘 미래의 자연동굴 탐

단마르에서 지구상의 동물 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구경할수 있는 미래의 동물원을 건설할것 을 계획하고있다.

동물원의 중심에는 사람들이 휴식할수 있는 큰 원형공간이 있 으며 그것을 둘러싼 3개 구획 즉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구 획은 지하굴과 다리를 연결되게 된다. 동물원은 매개 구역에서 배 트, 자전거, 사도들 리용하여 참 관할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참관자들은 코끼리 기린, 곰을 비롯한 각종 동물들을 자연사식조건에서 구경할수 있다 고 한다.

[조선중앙통신]

최근 우크라이나사태 를 둘러싸고 로씨야와 나토사이의 불신과 대립이 커지고있다.

얼마전 영국에서 진 행된 나토수뇌자회의에서 성원국들은 로씨야의 《위협》에 대해 운운 하면서 나토안에 고도의 준비태세를 갖춘 신속대응무력을 창설할것 을 합의하였다.

그에 따르면 기존 나 토무력이 사태발생이후 그 대응에 이르기까지 5일이상 걸리던대로 새로 내오는 신속대응무력은 지상 임의의 지역에 2-5일안에 전개하여 작전을 개시할수 있다고 한다.

나토사무총장은 신속 대응무력은 공군과 해 군, 특수부대의 지원하에 며칠내로 전개될수 있도록 준비를 갖춘 수 천명규모의 지상부대가 포함될것이라고 하면서 이를 위해 나토가 적절 한 지원체제구조를 내 오고 장비와 물자들을 사모배치하며 신속전개 연습들을 진행할것을 계획하고있다고 밝혔다.

도이틀란트의 한 신문은 나토가 라트비아, 리트바, 에스도니아와 같이 동유럽나라들에 5 개의 군사기지를 배비 할것을 계획하고있다고 하면서 매 기지에는 수백명의 군인들이 장기적으로 주둔할것 이라고 전하였다.

한편 나토는 로씨야국과 가까운 지역에서 화약제조는 군사연습을 대대적으로 벌려

고있다.

9월 초 나토는 체스꼬에서 대규모항공연습을 벌려놓았으며 15일에는 《세이프드 트라이언트 2014》로 명명된 미국주도의 군사훈련 나토수뇌자회의에서 시작 되어 가뜩이나 복잡한 이 나라의 정세를 더욱 악화시키고있다.

얼마전에는 나토성원국들의 해군함선들이 흑해에 들어가 합 동연습을 벌려놓았다.

전문가들은 최근 나토의 움직임은 로씨야에 대한 선전포고나 다름없다고 하면서 나토의 목적 은 군사력을 확장하여 로씨야에 직접적인 압력을 가함으로써 이 나라가 더이상 국제체제에 영향 력을 행사할수 없게 하자는데 있다고 평가하고있다.

이러한 나토의 행위는 로씨야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있다.

로씨야에 동맹을 물리지미루 뿐 전한 회의에서 로씨야국방부 콘에서의 미시인방위체계창설, 우주군사회의 추진, 나토의 동유럽주둔부대 확대 등 나토의 군사적행동에 대한 모든 위협에 응 당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 정 정부는 국가의 안전이 확보 되 할때까지 그 위협을 제거 해 줄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나토야부사신 드미트리 로코 진은 우크라이나의 복잡한 사태 는 미국에 매우 리로운것이라고 하면서 그것은 미국이 나토의 존재필요성을 입증하는 한편 저 들의 경제적경쟁자인 유럽동맹 을 약화시킬수 있기때문이라고 밝혔다.

우크라이나사태를 코에 긴 미 국과 서방의 대로씨야압력소동 이 강화되는데 대처하여 로씨야 정부가 일련의 대응조치들을 취 하고있다.

부연대통령을 책임자로 하는 로씨야연방 군사공업위원회가

창설되었으며 나라의 군사안보 정책수정업이 추진되고있다.

국방장관들은 이번에도 수정되는 군사안보정책에 미국과 나토가 적으로 명백히 규정될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일본의 온파제 산에서 9월 27일에 일어난 화산분출 에 의한 인명피해가 확대되고 있다. 1일현재 사망자수는 47 명으로 늘어나고 많은 부상자가 발생하였으며 화산재가 주변지

여러 나라에서 자연 피해

미국이 캘리포 니아주에서 쓰러 산 불로 피해를 입었다.

주의 한 국립공원구역에서 일 어난 산불로 약 130ac(에이커)의 산림이 불타버리고 60세대 의 주민들이 긴급대피하는 소동 이 벌어졌다.

일본에서 최근 태풍에 의 한 인명피해가 확대되고있다.

나라의 서남부와 중부지역을 휩쓴 태풍은 8일현재 사망자 수가 9명으로 늘어났다.

한편 일본의 온파제 산에서 9월 27일에 일어난 화산분출 에 의한 인명피해가 확대되고 있다. 1일현재 사망자수는 47 명으로 늘어나고 많은 부상자가 발생하였으며 화산재가 주변지

여러 나라에서 자연 피해

역을 뒤엎어 생태환경이 심히 오염되었다.

매치포의 서부지역에서 8 일 리히터척도로 6.2의 지진이 일어났다. 진앙은 엘 도라도도 부터 서남쪽으로 121km 떨어진 바다수역에 있었다 한다.

뉴질랜드 노스섬의 플렌티 먼에서 6일 리히터척도로 5. 1의 지진이 일어났다. 진앙은 무루 파라루부터 서쪽으로 약 25km 되는 곳에 있었다.

폴로비아의 북부지역에서 6일 6번에 의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버락은 11명이 목숨 을 잃고 13명이 부상당하였다.

인도네시아의 북부주마드

여러 나라에서 자연 피해

미국이 캘리포 니아주에서 쓰러 산 불로 피해를 입었다.

주의 한 국립공원구역에서 일 어난 산불로 약 130ac(에이커)의 산림이 불타버리고 60세대 의 주민들이 긴급대피하는 소동 이 벌어졌다.

일본에서 최근 태풍에 의 한 인명피해가 확대되고있다.

나라의 서남부와 중부지역을 휩쓴 태풍은 8일현재 사망자 수가 9명으로 늘어났다.

한편 일본의 온파제 산에서 9월 27일에 일어난 화산분출 에 의한 인명피해가 확대되고 있다. 1일현재 사망자수는 47 명으로 늘어나고 많은 부상자가 발생하였으며 화산재가 주변지

여러 나라에서 자연 피해

미국이 캘리포 니아주에서 쓰러 산 불로 피해를 입었다.

주의 한 국립공원구역에서 일 어난 산불로 약 130ac(에이커)의 산림이 불타버리고 60세대 의 주민들이 긴급대피하는 소동 이 벌어졌다.

일본에서 최근 태풍에 의 한 인명피해가 확대되고있다.

나라의 서남부와 중부지역을 휩쓴 태풍은 8일현재 사망자 수가 9명으로 늘어났다.

한편 일본의 온파제 산에서 9월 27일에 일어난 화산분출 에 의한 인명피해가 확대되고 있다. 1일현재 사망자수는 47 명으로 늘어나고 많은 부상자가 발생하였으며 화산재가 주변지

여러 나라에서 자연 피해

미국이 캘리포 니아주에서 쓰러 산 불로 피해를 입었다.

주의 한 국립공원구역에서 일 어난 산불로 약 130ac(에이커)의 산림이 불타버리고 60세대 의 주민들이 긴급대피하는 소동 이 벌어졌다.

일본에서 최근 태풍에 의 한 인명피해가 확대되고있다.

나라의 서남부와 중부지역을 휩쓴 태풍은 8일현재 사망자 수가 9명으로 늘어났다.

한편 일본의 온파제 산에서 9월 27일에 일어난 화산분출 에 의한 인명피해가 확대되고 있다. 1일현재 사망자수는 47 명으로 늘어나고 많은 부상자가 발생하였으며 화산재가 주변지